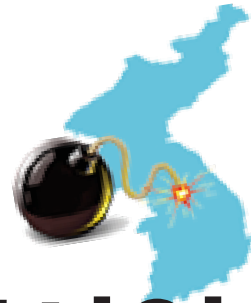


중단하라!



키리졸브/독수리 한미군사연습! (Key Resolve/Foal Eagle)

‘맞춤형 억제전략’ = 전쟁억제가 아니라 전쟁 유발!



올해 한미군사연습은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전개됩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는 전쟁위기를 억제/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공세 전략입니다.

“ 방어연습 이라고?
명백한 선제공격 연습! ”
= 유엔헌장 위반! 헌법 위반!

북한 붕괴 유도정책 지속하는 미국, 사이버전, 심리전도 강화!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올초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면 결국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붕괴만을 기다리거나 군사적 압박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나 평화 실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발언입니다. 전시에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작전과 점령작전(민사작전)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해 이번 연습에 참가시키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압박과 붕괴 유도는 해답이 아닙니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시작하라!

남북대화, 6자회담!

매년 되풀이되는 대결의 악순환 끊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정상 회담도 할 수 있다” 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빌미로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기념식 참가까지 반대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을 실시 중단하면 핵 실험을 실시 중단하겠다” 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 제의마저 일축하며 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화에

나설것’ (2015. 1. 15)을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하였고, 중국도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한반도 신뢰 조성과 평화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화통신, 2015. 1. 11)고 비판했습니다.

키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 멈추고, 대화의 길 열어야

남북은 1992년 키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한 사례가 있고,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되풀이되는 전쟁위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방어연습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합니다.

분단과 대결을 끝내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 남북·북미·6자회담 등 각급 대화를 재개하여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북핵을 동시에 폐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남북대화로 북미, 6자회담의 물꼬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